

고향으로 간 야곱 *Jacob Returns Home*

창세기 (Genesis) 35:27-29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농촌이 될 수도 있고, 도시도 될 수 있고, 고기 잡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고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짐승은 어미에게서 태어나 보살핌을 받다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Everyone has their own hometown where they were born and grew up. The hometown could be someplace rural, or in a metropolis, or near the seashore. However, animals don't have a hometown. From their birth, every animal has been taken care of by their parents. When they have grown enough to live on their own, they then become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그런데 인간은 고향을 찾고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추석도 그렇고 미국의 Thanksgiving Day 도 그렇고 그때가 되면 고향에서 가족이 다 모입니다.

But man is always looking forward to returning to their hometown. Just as with the Korean holiday Chuseok, on Thanksgiving Day in the U.S., all family members gather together.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낳아 기르신 이 땅의 부모님을 보며, 인간을 만드시고 평생 보살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Additionally, a man's nature is to spiritually look for God. From the image of our parents who gave birth to us and to took care of us, we can find God who made man and takes care of all our life.

오늘 말씀은 야곱이 30 여년 만에 고향 기랴아르바에 돌아 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형과 원수가 되어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The background of today's scripture is Kiriath Arba where Jacob returns to his hometown 30 years after he left. 30 years previously, Jacob took the birthright out of Esau's hand. Because of this, Jacob and Esau were enemies toward each other for 20 years.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삶을 축복했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과 원수가 된 야곱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죄를 용서받고 30년 만에 고향집에 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삭도 180 세로 늙어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Before Jacob left home, his father blessed his life and his mother gave him a warm loving heart. But now Jacob, who was an enemy to Esau, couldn't return to his hometown even though he missed his parents. When Jacob finally returned home after receiving Esau's forgiveness, his mother, Rebekah had already passed away, and his father Isaac who was 180-years-old was nearing death.

고향을 떠난 야곱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인이기에 언제나 부끄러웠습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두려웠습니다.

How was Jacob's life after leaving his hometown? He deceived his father so he felt dishonorable. Jacob was afraid of Esau who was trying to kill him because he took away his birthright.

집을 떠나 하란에 사는 외삼촌에게 갔지만 그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쫓기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은 이용했습니다. 딸 하나에 7년씩 14년을 품삯 없이 일하게 했습니다.

Jacob left for Haran where Laban, his mother's brother lived, but that did not make things well. Laban, his mother's brother, used Jacob who had escaped from his home due to his sin. Laban made Jacob work for 14 years without any payment.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를 속인 야곱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속아서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습니다. God is our hometown. However, if someone has sinned to God, they can't go in front of Him even if they wanted to because they are afraid. What would our life look like if God left us? If we leave God, we will live our lives as an illusion, just like Jacob who had deceived his father. We are all deceived by people, Satan, and this world.

그 뿐이 아닙니다. 죄짓고 쫓기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이용하듯이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찢어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That is not all. Satan is trying to use us with our sins just like Laban, his mother's brother, who used Jacob after he escaped due to his sin. Satan hurts our conscience with our sins. At that point, we should confess our sins to God and be cleansed with Jesus' blood.

기랴아르바는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기랴아르바 땅 마므레 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마므레에 동굴이 있는 한 밭을 가족 묘지로 헛 족속에게서 은 400 세겔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 묘실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묻히고 어머니 리브가도 죽어 묻히고 아버지 이삭도 죽어 묻힙니다. 나중에는 야곱 자신과 아내 레아도 죽어 그 묘실에 들어갑니다.

Kiriath Arba is the place where the ancestors of Israelites had lived. Jacob came home to his father Isaac in Mamre, near Kiriath Arba where Abraham and Isaac had stayed. When Sarah passed away, Abraham buried her in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Abraham weighed out for him the price he had named and agreed to by the Hittites: four hundred shekels of silver. His Grandfather Abraham, his mother Rebekah and his father Isaac were all buried in the same burial site. Later, Jacob himself and his wife Leah were buried in the same burial site.

조상들이 살다가 죽어 묻힌 기랴아르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시작된 민족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후일에는 기랴아르바가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Kiriath Arba, which buried many of their ancestors, later became the hometown of the Israelites as they began their life. Kiriath Arba later became Hebron. The Israelites who were once slaves in Egypt established a nation in Canaan.

그리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지만 그 약속은 기랴아르바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고향이요, 이스라엘 국가가 시작되는 고향입니다.

David became a king and ruled over the nation for 7 and half years in Hebron. God's Promised Land was Canaan where there it wa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but His promise began at Hebron which is Kiriath Arba. Hebron is the hometown where the nation of Israel and its people began.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땅 기랴아르바 마프레에 돌아왔습니다.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고향 헤브론으로 3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원수 된지 20년 만에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에 오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Jacob came home to Mamre, near Kiriath Arba where Abraham and Isaac had stayed. He came home to Hebron where there was a burial site for his ancestor after an absence of 30 years. Jacob was forgiven by his brother, Esau after 20 years and he was happy to be with him. But Jacob needed 10 more years to finally come home.

야곱이 고향에 오지 않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10년의 세월은 길을 잃은 양과 집을 나간 탕자처럼 고달프고 애달프고 한 많은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결혼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The time that he wandered from place to place was very difficult to Jacob, similar to the stories of the prodigal son. Jacob had lived with God's grace and was blessed in that he had 4 wives and 12 children. He became a very rich person.

야곱은 형과 화해를 했지만 고향에 가지 않고 숙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세겜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에 집으로 오다가 에텔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Even though Jacob was happy that he restored his relationship with Esau, he didn't come back home, but rather went to Succoth. And he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in Canaan. Then he moved on again and pitched his tent beyond Migdal Eder.

이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면서 그 고장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평생 슬픔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 남자들을 학살하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에브랏, 오늘의 베들레헴에서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첩이 되는 빌하와 간통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There were so many things that happened during those 10 years. Jacob's daughter Dinah had been defiled by Shechem, son of Hamor the Hivite, the ruler of that area and she had lived in

sorrow. Two of Jacob's sons, Simeon and Levi, Dinah's brothers, committed a sin by taking their swords and attacking the unsuspecting city, killing every male. Rachel, who was beloved by Jacob, died and was buried on the way to Ephrath (which is Bethlehem) after having great difficulty giving birth to Benjamin. Also, Jacob was heart broken because his son, Reuben went in and slept with his father's concubine Bilhah.

사람들이 고향이 싫다고 떠납니다. 어느 곳에 가면 크게 성공하는 좋은 삶이 있다고 기대하며 고향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사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이다.

Some people leave their hometown because they don't like it any more. They expect a better life and circumstance when they leave home. However, we sometimes look back to the good times of our hometown.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survive in this world.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의욕과 큰 기대를 가지고 떠났는데 생각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삶으로 상처와 슬픔 속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Even though we left our home with great desires and expectations, we cannot control our own life. So we come back to our home with pain and sorrow as a failure in life. This is life.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어서 좋은 날들을 다 보내고, 이제 늙어 빈털터리가 되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귀한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 주신 좋은 복을 다 잃은 후에, 늙고 지친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향집에서 문을 활짝 열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How nice would it have been to obey God when we were young? We spent lots of time without doing anything for God when we were young and now we are looking for God with emptiness as we are old. We now come back to God, old and shabby, after spending all the precious time and losing God's blessing. Nevertheless, God always opens the door and welcomes His children who are coming back home.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 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벌써 죽고 외로운 터인데도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이 받을 때까지 이삭으로 집안을 지키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집에 돌아오기까지 30년을 기다리시며 이삭을 오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Isaac, the father of Jacob, lived for 180 years. He had lived a very long time without his wife, Rebekah. Do you know why God had him live that long? The reason is that God wanted to keep His promise that was first given to Abraham until Jacob was able to receive it. So that's why God had him live so long, for another 30 years, until Jacob came back home.

에서가 고향 집 가까이 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에서가 아들로서는 먼저 낳은 장남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땅을 돌아다니며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요, 가나안에 사는 이교도 사람의 여인들과 즐기고 자식을 낳는 욕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소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낳은 에서보다 하나님께 삶을 둔 야곱이 마음에 듭니다.

Even though Esau had lived near his hometown, he was not qualified to receive God's promise. Even though Esau was the firstborn, he didn't care about God's blessing or God's Promised Land. Esau was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open country and had lived with pagan wives in Canaan. However, Jacob petitioned for blessings from God and wanted to succeed in faith by serving God. So God loved Jacob more who gave his life to God rather than Esau the firstborn.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오자 할일을 다한 아버지 이삭은 임종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뜻하신 것을 다 한 사람은 죽음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생을 살다가 모든 할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 자손들이 지켜보며 아쉬워하는 가운데 평온하게 잠자듯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아들, 에서가 지켜보았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오늘 말씀 29 절에서는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after Joseph came back home with his family, Jacob was nearing his death. Those who finish his work for God will receive God's blessing when they die. Jacob made all things beautiful by God's grace and now then he breathed his last and died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His sons Esau and Joseph buried him. Verse 29 says that he died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old and full of days.

사람은 한번을 살다갑니다. 세상에 태어나 점점 늙어 가는 그 세월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가족도 함께 가지 못하고 집이나 돈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이나 어떤 권력의 자리도 사람이 죽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그 복이 있을 뿐입니다.

Everyone has only one opportunity to live. From the time when we are born until we get old, those times never come back to us. Also when we are facing death, we can take nothing with us. We cannot take our family, our house, or our money. There is nothing to help when people die, not even our knowledge or social position. There is only hope between God and us. There are only blessings that God has prepared for us.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삶을 마치고 죽은 것처럼 이제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에서와 야곱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음을 맞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면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셨던 집과 여기저기를 가서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죽어 묻힌 묘소들을 찾아 살펴봅니다.

Isaac, Jacob's father, is following his father Abraham's, direction as one who finished his life and then died. And then Esau and Jacob who are watching their father's death will follow their way too. When we come back home, we usually look around our circumstance for things like our father's room, grandfather's chair, etc. If their burial ground is near, we may have a look in their tomb.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거기서 우린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What can we find there though? We can find our life the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t San Antonio/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Sermon by Pastor Daesub Han/한대섭 목사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들의 고향을 멀리도 떠나 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산 것을 가족이 알고 우리들의 이웃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하여 재가 되든지 지금의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We are living here at San Antonio where our homes are far away. Our family and neighbors know that we are living here. After we die, our bodies will go out of this world as being buried under the ground or being reduced to ashes due to cremation. So we should happily live in this world. We should thank God for living with Him everyday.

야곱이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석이나 Thanksgiving Day 에 고향에서 부모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좋은 곳을 마련하고 우리가 천국에 오는 그 날을 기다리심을 믿는 성숙된 신앙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 should live with our hope that we will go in front of God someday just like when Jacob came back to his home after 30 years of absence. I pray that we should be matured Christians by believing that God is waiting for us in heaven just as our parents are waiting for us on Chuseok or Thanksgiving Day at home with good food.